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성폭력 형언할 수 없다”

우크라 영부인, CBS인터뷰
“지도부 허용하에 의식적 자행”
“전쟁범죄...미신고 피해자 많아”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지에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해온 성폭력은 “전쟁범죄”라면서 “말로 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개탄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의 점령지 성폭력은 “개별적인 일들이 아니라 러시아군 지도부가 군인들에게 그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러시아 군인들의 성폭력이 총동적인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군인들에 의한 점령지 성폭력은 우크라이나 검찰청에 신고된 것만 231건이며, 그중 어린이 피해자가 13명에 달한다고 CBS는 소개했다.
그러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 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젤렌스카 여사는 추정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가해자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이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서관 수백 곳을 불태우고, 수천개의 박물관, 문화시설 등을 파괴했다면서 “문화 역사 ‘전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정치적인 질문”이라면서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며 피해 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길 희망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할 만큼 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물론 정치적 논쟁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진리가 이겨야 한다. 진리는 우크라이나 쪽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최근 남편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동행했다. /연합뉴스



미 동부 시간 24일 오전 11시께 미국 유타주 사막에 있는 국방부 유타 시험·훈련장에 낙하한 미국항공우주국(NASA)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OSIRIS-REx) 샘플 캡슐에 NASA 직원이 다가가는 모습. /연합뉴스

소행성 ‘베누’ 샘플 담은 캡슐 귀환

오시리스-렉스, 발사 7년만
흙·자갈 등 250g 수집 추정
지구 생명체 출현 단서 기대

소행성 ‘베누’(Bennu)의 흙과 자갈 등의 샘플을 채취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OSIRIS-REx)의 캡슐이 24일 오전 10시 53분께(미 동부 기준) 지구에 귀환했다.
오시리스-렉스의 소행성 샘플 캡슐은 이날 미국 유타주 사막에 있는 국방부 유타 시험·훈련장에 낙하했다. 이 장면은 NASA TV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됐고, 현지 언론들은 소행성 샘플 캡슐이 ‘터치다운’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이 캡슐의 귀환은 2016년 9월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센터에서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에 실려 발사된 지 7년 만이다. 38억6천마일(62억km)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은 지구 상공을 비행하면서 6만3천 마일(10만km) 떨어진 곳에서 이 캡슐을 지구로 보냈고, 4시간 후 예정된 목적지에 착륙했다.
이 캡슐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분 일찍

떨어졌다. NASA는 이 캡슐의 낙하산이 예상보다 4배 높은 2만 피트(6,100m) 높이에서 열려 ‘조기 터치다운’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이 캡슐에 베누라고 알려진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의 흙과 자갈 등이 250g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소행성 물질을 지구로 가져온 것은 일본의 이토카와(2010년), 류구(2020년) 소행성에 이은 세 번째로, 미국으로선 첫 번째 소행성 표본 회수다. 베누 그러나 채취한 양은 가장 많다. 일본은 당시 이토카와와 류구로부터 각각 1g 미만과 5.4g의 샘플을 가져왔다.
NASA의 수석 큐레이터 니콜 루닝은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샘플 캡슐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JSC)로 보내져 분석에 들어간다. NASA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전세계 과학자들의 추가 연구를 위해 샘플의 75% 이상을 JSC에 보존할 예정이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생성 초기의 물질들이 포함된 소행성 샘플을 분석하면 베누와 같이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이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자동차노조 파업 지지한 미 민주당 의원 2명
코리 부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출신 의원(맨 왼쪽)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뉴욕 출신 의원(앞줄 오른쪽) 등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2명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윈츠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을 지지하는 피켓 시위에 참가했다. UAW 조합원 약 1만3,000명은 15일부터 포드와 스탠달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3대 업체를 대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한중일 정상외교 3국 협력·지역과제 논의 의미 있어”

일본 마쓰노 관방장관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 정부가 올해 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해 “지역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는 한중일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일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방식, 지역 과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이 한덕수 한국 총리와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향을 표시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마쓰노 장관은 다만 “향후 한중일 협력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일정에 대해서는 지적인 정상회담을 포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중국과 정상 및 외교장관 차원에서 한중일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나가기로 했

으며 한국과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한국의 대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3국 사무 레벨에서 제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당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019년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담의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연례 협의회에 나선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농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한국을 방문해 오는 26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3국 고위급 회의(SOM)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카르텔에 강경 대응 멕시코 시장, 갱단에 피랍

멕시코에서 악명 높은 한 폭력 조직이 자신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던 현지 시장을 납치했다. 멕시코 할리스코주 검찰청은 24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에 “우리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미초아칸주 코티하시(市)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티하시의 올란타 산체스 피게로아 시장은 전날 가족과 함께 인근 할리스코주 사포판시(市)를 찾아 쇼핑하고 이동 중 무장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행방불명됐다.
시장과 동행했던 다른 2명은 피해를 보지 않

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지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살은 피게로아 시장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에 의해 피랍됐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CJNG는 현재 미국에서 수감 중인 호아킨 구스만(일명 ‘엘 차보’)이 이끌던 시날로아카르텔과 더불어 멕시코의 양대 갱단으로 꼽힌다.
지난 7월 미국 마약단속국은 영향력을 확장 중인 CJNG에 대해 보고하며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지에 펜타닐 등 마약 유통 센터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마을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GWANGJU DONGGU

우리동네 빵집에서 인공지능 까지!!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창업의 가치를 더해 함께 성장하고,
스타트업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동구창업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서석동)
TEL. (062) 608-3991~3993
FAX. (062) 608-2719

광주주얼리지원센터

주얼리 소공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주얼리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지원

www.gjewelry.or.kr

1F · 주얼리 전시판매장
· 주얼리 체험공간

2F · 공공장비실

3F · 교육실
· 세미나실
· 바이어 상담실
· 운영사무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1 (충장로 5가)
TEL. (062) 608-3994
FAX. (062) 608-2719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자금상담 등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일자리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